

III. 政策 課題

1. 世界貿易機構(WTO)의 批准 現況과 展望

○ (現 況)

- UR 협상 참가국 125개국중 34개국 批准 完了

○ (展 望)

- 美공화당, UR비준 시사로 WTO 出帆에 청신호
- WTO 사무총장 選出이 다음 關心事
- 우리나라는 12월 6일 본회에 회부 예정이나 난항 예상

○ 현재 UR 협상 참가국 125개국중 34개국이 批准을 完了

- 11월 26일을 基準으로 독일, 영국, 그리스, 오스트리아, 아일랜드, 멕시코, 싱가포르, 말레이시아 등 34개국이 批准을 完了함

○ 美國의 批准 現況

- 美의회는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상·하원이 토의후 표결 예정
- 美國內 UR 批准은 11월 8일 중간 선거 이후 공화당의 반대에 부딪침
 - 美공화당의 반대 이유는 WTO가 '1국가 1투표제'를 채택하여 미국의 영향력이 대폭 줄었고, UR 協約의 내용이 미국의 국내법과 상충되어 미국의 주권을 침해(수퍼 301조), UR 협정 발효로 인한 稅收 損失(향후 10년간 약 400억 달러)의 擴大 등임
- 11월 23일 공화당의 돌(Bob Dole) 원내총무가 조건부 批准 支持를 시사하여 年內 批准이 거의 확실시됨
 - 돌의원은 WTO가 미국에 부당한 결정을 5年內 3번 내리면 美의회가 WTO의 탈퇴를 議決할 수 있게 하는 조건부 합의를 제시하였음
- EU 및 일본 등 세계 각국도 이와 유사한 조건을 결의할 수 있어, 앞으로 WTO 협정의 이행이 決裂될 憂慮가 있음

○ 유럽연합(EU) 및 日本의 批准 現況

- 유럽 사법재판소는 서비스, 지적재산권의 협정권은 EU 집행위와 12개 회원국이 동시에 權限을 보유한다고 判決함
- 따라서, 서비스 및 지적재산권에 대한 회원국의 별도 批准을 받아야 하므로 12개 회원국 전체의 年內 批准이 불가능할 수 있음
- 일본은 쌀시장 개방에 따른 輿論의 여파로 약 6조 엔에 달하는 농업 대책안 준비로 批准 동의안 상정이 늦었으나, 비준 동의안과 관련법 개정안의 衆의원(12월 1일)·참의원(12월 5일) 통과는 무난할 것임

○ 우리나라의 批准 現況

- 우리나라는 WTO 협정 批准 동의안을 국회의무통일위에 상정, 공청회를 거쳐 12월 6일 본회의에 회부할 예정이나 민주당이 WTO 이행 법안 制定을 요구하며 조건부 批准을 제시함.

○ WTO의 出帆과 展望

- 미국의 비준이 완료되면 WTO의 出帆은 확실시되며, 앞으로는 WTO 사무총장 선출에 관심이 몰릴 것으로 예상됨
- 우리나라의 김철수 상공부장관과 카를로스 살리나스 멕시코 대통령, 레나토 루기에르 前이탈리아 무역장관 등이 후보에 올라있음
- WTO 사무총장으로 선출됨으로써 앞으로 있을 수 있는 무역분쟁이나 통상협상에서 有利한 위치를 先占할 수 있음
- 政府는 WTO의 출범을 기정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으며, 농림수산부 등은 이미 WTO에 대응하여 制度와 法律의 整備를 서두르고 있음
- WTO 비준과 함께 정부는 대외 무역법, 관세법 등 관련법의 개정을 서두를 것임
- 企業은 외국 기업의 불공정 무역 행위에 대한 반덤핑 조치, 우리나라 기업의 산업재산권 관리, 개편되는 정부의 산업보조금 제도 등을 숙지하고 활용하도록 노력해야 함

(이 준 호)